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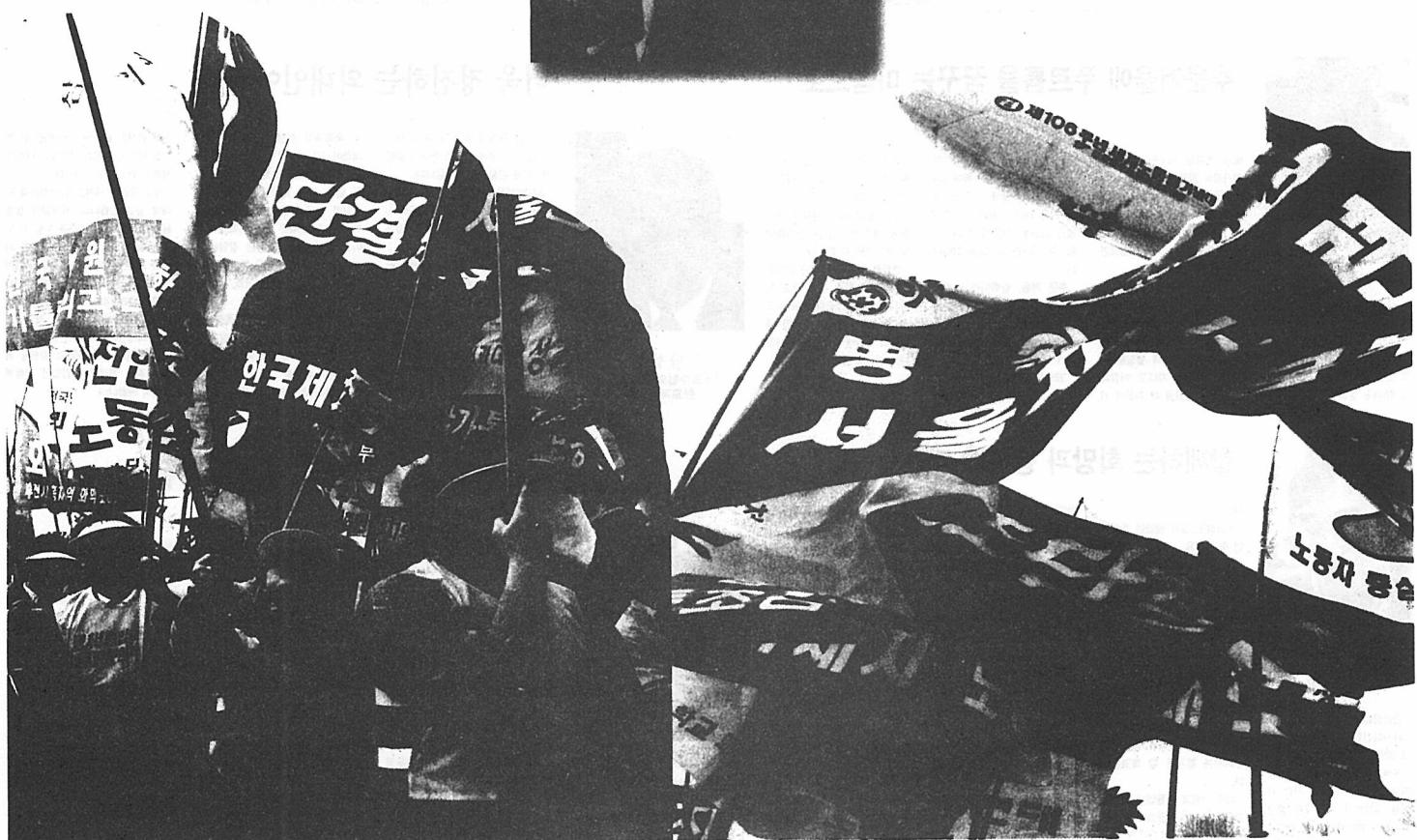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1월 8일(수) 제682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김 주간 박재우 편집감 고병권 인쇄인 총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F)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 02-4152, 4466 FAX 961-4183 (동인) 0335-30-4112 서울시 종로구 이문동 270-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산 80

보다 더 당당하게 살고 싶은

1997년을 그려보자



여론

사설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경제를 살립시다"

새해 첫날 발행된 '조일보'를 잠시한 글이다. 현재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며 노동계가 총파업을 일해있는 상황에서 이 말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가올지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동계의 파업이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는데는 결코 도움이 주지 못할 것이고 이런 편한 결론 앞에서 국민들이 총파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 는 합동기라는 점이다.

1일(수)자 '조일보'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세도권 언론들은 신한국당 의원들이 이 한 행위의 반대에도 없이 일상화하게 노동법·안전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하거나 같이 총파업을 경계하면서 인권시위와 인권시위를 비准时으로 대구하고 있다. '올해 무역자 2백억달러' '총파업으로 인한 하루 손실은 6천억원' '주가 630포인트 봄파' 등의 기사를 앞세우며 그 누구보다 앞장서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역할을 막아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총파업 주제' '총파업 참가 노동자 일터 복귀' '총파업 일단 종결' 등의 기사를 통해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총파업의 열기와 찬물을 끌어쓰는 불순한 의도를 여실히 보여졌다. 인권시위와 같은 양태는 노동계의 '파업 참가인원 축소' 발표와 맞물려서 정부측과 언론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노동계 죽이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노동계 죽이기'가 거세질수록 노동계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신한국당이 26일(목) 새해 6시에 노동법·안전법을 날짜기 처리한 사실은 알려져자마자 기아·생명·아세아 등 차주자 연평 산하노승과 한대교노승(한총련) 중심으로 전국 920여개 기관(조노조 50여개) 중 96개 노조 15만명이 참여해 파업을 들어갔다. 또 병원노련은 4월(금)부터 서비스업 노동자 26일(토)부터 파업을 들어가는 등 날치기 통과 이틀만에 공공부문 노동조합 포함한 326개 단위노조에서 27만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의 일정은 27일 여의도회관을 시작으로 현재는 행정성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총총 지도부들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경례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 신년 3일(금)부터 재개된 2차 총파업은 1차 총파업 못지 않은 열기로 담고 있다. 1차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언론노련(열린비판·방위사)은 비롯해 한동노총이 11일(화)부터 파업을 결의한 상태로 이 밖에도 괴이기획,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의 공공부문에서 파업을 결행한 상태이다. 그때문에 4월(금)까지 총파업과 열기의 결과로 노동계가 더욱 외면의 파업기금을 감당하지 못해 총파업을 결정한 것만 빼도 알 수 있다.

'세번 째까지 신화'를 이용하는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이번 경쟁을 '노조제와 노동기본권과 경영자족의 노동시장 유연화 확보' 무기자 측면을 고려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은 삼성화재 노사위원회(노개위)의 안보다 더 빠르게 '경리하고자' '조선진단원 노동법'을 '변형근로시간제' 등의 독소 조항과 함께 포함해 있다. 더구나 노개위에서 힘의 힘으로 '공정부문 노조 인정' '교의 단결권 인정' 등의 시험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당초 노사간의 회합과 도론을 통해 적극적 노사관계를 확장하는 이들의 관계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취지로 출발한 노동계가 한낱 국민들의 관심을 잠시 불붙여 두기 위한 불모로 전개되었고, 동시에 경쟁의 치중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신한국당은 이번 노동법 개정을 앞두며 끊임없이 '경제위기'를 거론했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는 우리 노동자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일관된 정체의 부재에서 오는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실정(失政)을 노동자들에게 피하기 위해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자신들의 실정을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써온 노동계가 한낱 국민들의 관심을 잠시 불붙여 두기 위한 불모로 전개되었고, 동시에 경쟁의 치중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신한국당은 이번 노동법 개정을 앞두며 끊임없이 '경제위기'를 거론했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는 우리 노동자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일관된 정체의 부재에서 오는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실정(失政)을 노동자들에게 피하기 위해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자신들의 실정을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써온 노동계가 한낱 국민들의 관심을 잠시 불붙여 두기 위한 불모로 전개되었고, 동시에 경쟁의 치중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은 본명 모든 국민이 즐거운 삶을 살아보자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해결하려 있어 국민의 대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회생을 강요 한다는 '질상'을 보자는 주장은 한낱 일상 배송을 위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1950년대 이후 40년 이상을 물고기처럼 지켜왔던 '경제발전=노동자 회생'이라는 등을 오늘날까지 성립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등식이 또다시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파업을 비판하는 학생들이 비슷한 시선을 필요로 한다. 이제 우리 노동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미래지향적 사고와 대학 선진화에 대한 사명감을 갖자



이숙경
(재단 이사장)

친애하는 외가족 여러분!

회명의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교수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동문 등 대가족 여러분들의 가족에 만복이 것들기 비단며, 늘 건강하신 가운데 드하시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21세기를 험난히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 예술을 '나홀로는' 성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윤석으로 '세계속의 세계'를 호흡하는 명문대학의 의 이상과 꿈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는 끝은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올해와 경영목표를 '내실있는 성장과 혁신'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통해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국제 전문대학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등 교육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서 예술과 예술가를 위하여 예술을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질서 그리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공연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에 '국제 친문이니' 앙상 특성화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외대 문학상 · 학술상

시 가작 - 박종언(서학 · 포어 4)

대학을 떠날 때쯤

이만금 와서
떠날만큼만 와서 되돌아 보면
처마 걸 살았다는 말은 못하겠네
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한 시대를 증오할 때도
나 모든 愛憎의 강은 알기만 하고
저 훌로 끌어지지는 못했네
지금은 벼랑 것 벼랑 열정의 침몰상태
슬픔과 저적의 암는 것을 쳐며
술 찾는 시간만 걸어오지고;
그려 어느 날, 눈 내리던 날
술 마신 몸으로 내 찾야간
교정의 역사 추모비
손으로 쌓인 눈 쓸어주며
‘춥요, 영?’
그는 밀이이 한 시대의 십자가로 서 있고
나는 나대로 한 시대를 살아 서 있고
추모비 앞에서
추모비와 함께 눈맞다가
하얀 죄책감으로 몸 떨며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돌아서던
돌아서며 흐느끼던 그날, 눈 오던 날
죽은 선배는 추모비에서 십자가 지고 걸어나와
함께 눈 맞으며 걷고
‘설아남는 거 죄가 아니야’
말하며 빠 수때 보듬어 주네

그렇게 훌로 속살이 하던 날들의 끝에서
나는 아직도 약은 신의 강에서 서성이고
거어어리는 물보람으로만 서 있는;

여기에는 일어났다
들어온 길만금 살아서
길도
여름다워야 힘을
금
학을 떠날 때쯤 여전히



‘학을 떠날 때쯤’을 흐트러져 못한대로 담장을 유품으로 봄는 그림이다. 이리면 가질 수 없는 짐, 그러나 같은 그림은 그림이 아님을 알리지도 않는 짐이다.

모두 호강을 준비한 김희경의 ‘임진강’. 가길 수구하고 그를 차지가 리듬을 가진 점, 그리고 그림에 드는 아름다움과 풍미를 갖지 않는 짐으로 간주된다.

김희경의

‘임진강’은 1980년 8월에

불분명해서인지 잊기기에 여간 빡빡

하지 않다. 주상작인 것인 시리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시합

린 통포의 옥수수’는 재미있는 소재인데 제대

로 홀연히 헤어지 못한 것 같다.

임태혁의 ‘구국에게나 미친가지’나 ‘가장’

등은 임희경과는 달리 암昧하지 않는다. 교육은 인간을 다루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일 보

다 그 존엄을 인정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육은 존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원의 모습은 참으로 교육

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고 있습니까? 가끔 중시되어야 할 사항을 그저 여기

저기 깨우침을 주는 듯한 물건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육하는 사

람들의 모습이라면 더 이상 교육은 존엄한 것일 수 없다.

우리교육의 현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작년 초 우리는 살인적인 등

목욕 인신상에 맞서 싸우다 옛고고 고문 우리들의 전신 하나를 거리에서 펼

아야 했던 거리에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공연히 의회상에 의회상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한 친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학교육의 현실을 다시금

급우를 헤어지 못한 것이다.

지난 1년의 학부제 부정을 돌아보면 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코 교육

의 문제는 중심이 사람이라야 한다는데 한반도도 우리는 물러설 수

가 없었다. 교육을 한다는 학원에서 교육의 본성을 표기하고 확인하는 것

을 결단코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정권은 과거 우리민족의 수많은 회생으로 일구어놓은 민주주의를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부제는 이제 너무나 많아 있다. 지금 노동자들은 총파업으

로 자신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맞서 싸우고 있고 수 많은 미국시민

들이 이를 통합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반드시 지

켜져야 하듯이 학원의 민주주의도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상식

을 지키고 학원의 민주주의를 지키며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나가는

길에 최선투쟁에 한발의 양복도 없이 걸어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원

의 미래와 학원의 미래이다.

학부제 투쟁 선언문

학원의 미래와 학원의 현실을 생각하며 찬당한 실정을 금할 수 없다.
학원이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학원은
사람을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은 인간을 다루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일 보

다 그 존엄을 인정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육은 존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원의 모습은 참으로 교육

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고 있습니까?

가끔 중시되어야 할 사항을 그저 여기

저기 깨우침을 주는 듯한 물건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육하는 사

람들의 모습이라면 더 이상 교육은 존엄한 것일 수 없다.

우리교육의 현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작년 초 우리는 살인적인 등

목욕 인신상에 맞서 싸우다 옛고고 고문 우리들의 전신 하나를 거리에서 펼

아야 했던 거리에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공연히 의회상에 의회상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한 친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학교육의 현실을 다시금

급우를 헤어지 못한 것이다.

지금 정권은 과거 우리민족의 수많은 회생으로 일구어놓은 민주주의를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부제는 이제 너무나 많아 있다. 지금 노동자들은 총파업으

로 자신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맞서 싸우고 있고 수 많은 미국시민

들이 이를 통합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반드시 지

켜져야 하듯이 학원의 민주주의도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상식

을 지키고 학원의 민주주의를 지키며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나가는

길에 최선투쟁에 한발의 양복도 없이 걸어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원

의 미래와 학원의 미래이다.

제18대 총인총학생회

학부제, 너를 구속한다. 땅! 땅! 땅!

판 결 문

본 ‘학부제주화법안’은 되고 학부제’에게 97년 1월 8일을 기해 자격방지율 명한다.
그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고가 실시됨으로 인해 회장과 그 기관으로 가득차야 할 대학이
복선은 ‘제한조치’로 정해졌다.

둘째, 회장과 그 소속자(물론 회장과 세대기들이 학이기이 할 곳에 찾지 못해 방향마다
가보다는 개인인 척 친목연대되었다).

셋째, 회고의 실시는 기본적으로 ‘전국선택권 전전보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사실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대기들에게 ‘제20 일사’라는 고통을 안겨준 바쁜 치리하였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화보



민족자주언론
외대화보

제33회 외대 문학상

비평부문(당선작) - 중성의 입으로 말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모색 - 최윤 소설론

8 외

다양한 방법으로 탈정형화한 인물읽기

중성(中性)의 입으로 말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모색
-최윤 소설론

① 실험에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작가

1. 머릿말

자신에 대한 존예의 확인은 현대를 사는 개인의 실존적 유행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열망은 중심을 잃은 현대 사회에서 절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며 하나의 출구를 찾고자 한다.

작가 최윤의 소설은 바로 그런 물구나무 찾는 봄부립이다. 작가는 주체가 방향 없이 떠도는 한길 속에서 자기 존재에 관한 의미를 새로운 인간상을 형성하여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형상화의 과정은 줄줄 사설주의를 주류로 인정해 오고 있는 우리의 비평 풍조에서 그 정도를 이탈한 형태로 나타난다. (김경수, 문학의 현관서, 세계사, 1994, p.227)

작가의 소설은 사설주의가 심해에 온 확실한 자체를 의문시하여야 할 도고이며 상정하고 구제하한다. 즉 전통과 소설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면서 소설을 형편의 것이 아닌, 보다 자유로운 장르로서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맨이 우리 소설의 나름의 시환이 미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글쓰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린 작가의 두 가지 성향,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확인과 형성화된 틀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작가의 작품 '화색 눈사람'의 마지막 문장에 서 잘 드러난다.

"아프게 시라진 모든 사람은 그를 알던 이들의 마음에 상처와도 같은 악은 빛을 날린다."

윗 문장에서 보이듯, 기어 속에 남은 '아프게 시라진 모든 사람'이, 살아남은 자의 기쁨에 원심의 기쁨을 '빛'과 함께 응합함으로써 복잡한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런 복잡한 심리 위에 인식의 대상과 인식의 주체, 상처와 상처의 그림자,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가 텍스트 속에서 섞여고, 상호 주관적인 대화의 지평을 이룬다. 이 대화의 주제는 작은 빛, 즉 기적이 드러난 사설적 사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디자 말처럼, 미마시스(mimesis)의 세계를 넘어서 세미오시스(semiosis)의 세계가 흥조되는 것이다. (최윤의, 하나님은 없다(서울: 문학사상사, 1994), p.445)

이렇게 구축된 세미오시스의 세계는 미마시스의 세계의 문제상을 흥기시키면서 전면적인 반성을 하게 한다. 그 반성을 자리 위에서 인식의 주체는 새로운 인간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윤의 소설은 자기 존재 확인과 기억의 심리 위에 새로운 길 트기를 모색하고 형성되는 실체이다. 그 실체들은 텍스트 내부의 논리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세계의 힘에 놀린 자기 존재의 확인이 아닌 존재의 차이로 직면하게 된다.

단편집 '저기 소리 없이 한점 꽂잎이 지고'와 '화색 눈사람', '속삭임 속삭임', '하나코는 없다'와 '숲에서 윤으로' 그리고 '침, 벌, 문, 벽, 끝, 금, 풀' 등을 통하여 살펴보자 한다. 이 작품들은 대개 인식의 차이를 찾는 미로 험악을 통해 존재 확인의 유품과 새로운 자신의 모색에 대한 모색이라는 중증기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중증구조는 현대 사회 속의 극단적인 삶의 압박에 대한 무기력함과 그 가운데에서도 삶의 균형적인 동력을 찾고자 하는 주체들의 액설적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 작가의 태도가 정형화된 인물을 반복적 순환으로 그리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로운 인간상을 회고하는 것이다. 그 세계는 '아프게 시라진' 사람의 자리로, 소녀가 다가갈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잠을 깨자니, 내 삶은 고집되어 아프지도 않아. 이렇게 비틀어도 살피거나 부트지 않고,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잠이나 부드럽지 않아. 손바닥에 힘이 없으니 고집하여 지지지 않아... 정말



부당한 등록금 인상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서울캠퍼스 2학기 민주납부시작이 지난해 6월 높은 학생임금으로 가결되면서 9월 20일 131명이 민주납부등록을 했다. 이어 민족은 분할납부투쟁으로 이어졌으며 이 기간 학생들은 학교축제와 수차례의 학동을 벌여서 학식부양장, 단식, 연이온 집회로 투쟁하여 등록금조율을 위한 교학협의회 구성과 제단전입금 확충을 압속방으로 정리했다. 민족투쟁은 교육재정확보의 전부와 그것이 지속되는 등록금투쟁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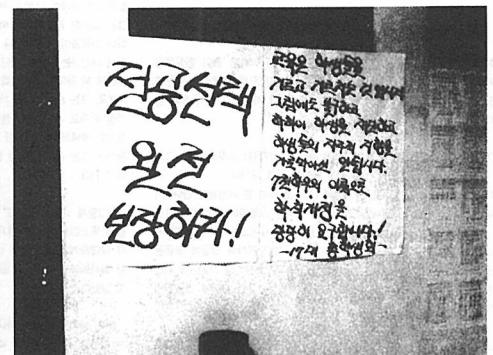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96년

방향수록 솟구쳤던

지난 96년은 90년대에 이어 민주노동진영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심했던 해였다. 사건으로 돌아온 학내의 주요 사건은 4월의 일사장국에서 범인즉 대회·점수술 사건, 7월의 부기부, 노동당 날치기파, 지금의 대우 대주주로 이어지는 노동당으로 막강한 출판생명권이 구수·수해되는 등 그 파악과 학내까지 미치고 있다. 이어서 최근에는 97년 10월 대주주 이어 10·14로 되는 등 그와의 연기로 이어지는 이전 학내에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김기주

서울캠퍼스 대동제기간이었던 지난 5월 14일 밤, 학생처장은 포함한 학생처 직원 8명에 의해 재단 문제를 내용으로 한 기획대자보가 떨어졌다. 이에 학생들은 공시과대학과 학생처장실 건너를 들어온 뒤 길러졌다. 이 사건은 등록금 인상자치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주로 펼쳐진 대학 내부에서 벌어진 자치화 시도로 해석된다.

보통 배제 4시 30분경, 경찰방역
대대를 칭팅했다.
전국 23개 대학, 서울내외 12개 대학에서
경찰방역, 노동계 중부 지역들을 향하여
경찰방역 여부 여부에서 1600여 대에 걸친
차량들과 1400여 명으로 나르는 경찰방역
나루 것으로 살피았다.
온라인에서 경찰과 암호화폐는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경찰과 같은
경찰방역 여부 여부에서 1600여 대에 걸친
차량들과 1400여 명으로 나르는 경찰방역
나루 것으로 살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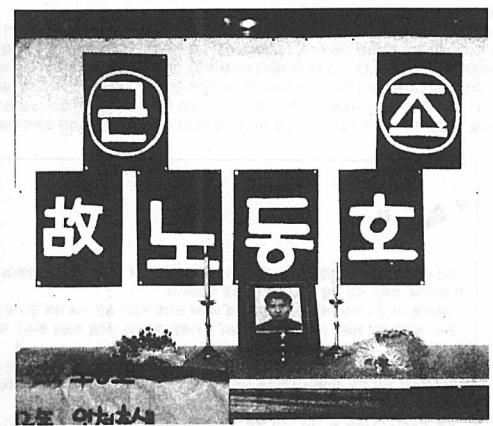


번민대회이후 전국의 모든 대학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본교 서울캠퍼스도 지난 8월 20일 새벽 기습적인 경찰방역의 불법침입로 기울파손과 함께 학생회의 서류들이 압수수색됐다. 학관불법침입 규칙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경찰들은 확장을 시도해 압수수색을 벌이겠다는 발표를 미だ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전국을 둘러싼 번민대회 이후 정권의 이적은 공안징국조상 읊모는 많은 학생들의 구속, 수배를 낳았다. 서울캠퍼스 30대 총학생회장 박성蹲군은 10월 1일(화) 아침 선전전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잠복해 있는 시장경찰에 연행되어 험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개월 째 체포영장을 신고받았다. 또한 현재 재규 17 대회 모의경기는 8월 1일(금) 개최되었으나 모의경기로는 아예 참가하지 않았다.

【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서 최근 구금 상태인 박성蹲군의 소식입니다

성적 순으로 전공을 결정하는 학교축과 전공선택권 원천 보장을 요구하는 응원캠페인 학생회족의 합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제 전공선택권 거부 철회투표가 10월 16, 17일에 걸쳐 실시된다. 87%의 높은 창출률로 기록될 예상이다. 2주까지 전공선택권과 관련된 모든 학사 회의를 거꾸로 방송 총장실. 교육부 회의 반발과 같은 이유로 학부제 전공선택권 원천 보장을 결정하고자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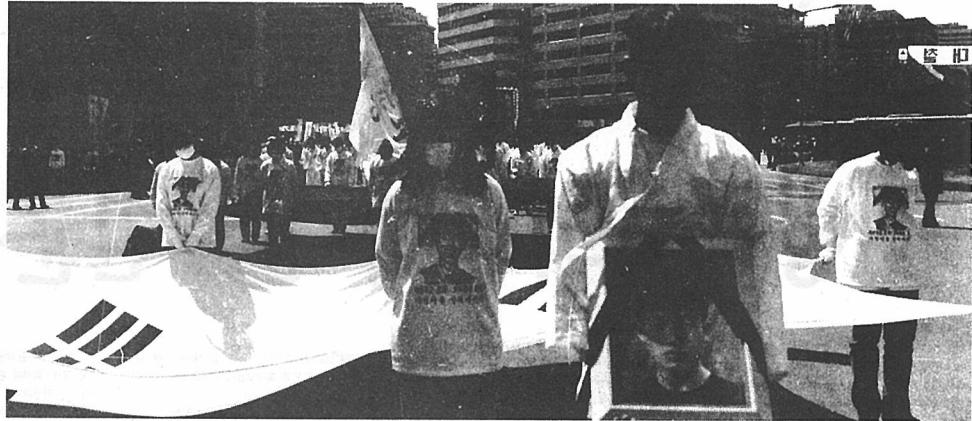
정부가 5·31 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해 온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국책대학)'에 본교가 최우수 국책대로 선정됨에 따라 5년간 약 32억4천석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재단전입금은 여전히 전혀 없는 상태로 등록금 인상, 지원금 벤치 문율의 우리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현대의 역사에서 인류의 회화으로*의 기치로 제 3회 세계인문문화축전이 용인캠퍼스 주최로 영화제· 풍물 음식전에 이어 10월 12일, 13일 동안 리틀엔젤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에서는 동서양 풍물과 민속춤이 서보여 석회리에 치러졌다. 특히 비아문화계열의 심포지움,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참가가 두드러졌다.

96년은 인타까운 죽음이 많은 해였다. 여름 장마때 군마사-매을사고를 당한 엄성웅군(서양어-불어 93학번), 실족사는 신의월군(사회과학계열 1학년), 링수당에서 의사한 노동호군(서학-영어 91학번),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과과 직원 장성환씨(독일어 88학번)등, 불의의 사고로 유령을 달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빈다.

사진 특집

3월 29일 대선자금 경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의지던 노수석군이 최주단을 둘러싼 정부의 살인적 강경 진압에 피해 숨진 후, 전철원, 권희정, 홍혜만, 오명관 등 많은 학우들이 사랑하거나 분신 자살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사의 죽음을 관제인들은 첫 번 죽음으로 매도하고 4·11총선에 그 어파가 미치지 않게 해석시켰다. 정부의 책임을 측구하기 위한 집회가 서울시내에서 열렸으나 이 과정에서도 경찰은 폭력진압을 해 김영삼정권의 폭압성을 확인 시켰다. 이후 계속된 공안분위기는 4·11총선에 어당 승리를 위한 어쁜 조성에 이용되었다.



애국의 신념

96

안기부법 변칙 처리

제 17 회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등의 조건은 본회의 의결

◇ 재판장의 수상

6·29 수용 17

全斗煥씨 無期로 감형



周水禰씨의 刑감정 - 朴俊煥씨 1심 대로

6·29 수용 17

지난 12월 16일(월) 12·12와 5·18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과 징역 1년에 선고받은 전·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확실지에 대한 이해못할 만큼의 관대한 조치는 국민을 무시한 기만적인 처사였다. 또한 그동안 떠들던 전·노씨 사면·식방실이 이제는 근거있게 다가오고 있다.



'제 7차 범민족 대회' 와 '제 6차 범체학련 통일 대축전' 이 연세대에서 열렸다. 건국이래 최다연행의 기록을 세운 이번 대회는 행사도중 많은 수의 학생 경찰이 부상 당했다. 경련은 수천례에 걸친 김희허가 요구 목발, 힐기와 증강비 등을 앞세워 학생들을 고립시키고 음식물, 의약품 반입마저 금지한 초강경 진압을 자행했다. 본교에서도 풍언캠퍼스의 최진선, 강석한, 배현석군과 서울캠퍼스의 이문희군 등이 연행 구속되었다. 이는 김영삼정권의 집권 하반기를 맞아 정부의 인권적 대권 창출을 위한 공안 정국 조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지난 9월 18일(수) 북한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춘천 도중 잠수함의 최초로 일하고 있다. 안기부의 수사관부밀을 내용으로 개정통지한 이번 안기부법은 안기부 수사관 축소로 민주화를 헌장을 일제로 한다는 역사적의의를 뒤로 한채 잠수함 사건과 함께 조작된 공안정국의 분위기 속에서 기만적 민족민족의 본질은 보여주었다. 또한 OECD기업과 함께 물아친 대책없는 개방화 주진 속에서 강경위기의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 등 각종 노동안법들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을 신두로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의 무효와 정권회피를 요구하며 8년 노동자대회 이후 10년만에 거대한 피업을 벌이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조를 포함한 2단계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작: 사진부

제 13회 외대학술상

14 외

인문과학(당선작) -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상황 속에서 바라본 메타픽션의 문학적 의미

메타픽션, 포스트 모더니티한

I. 들어가는 말

특정시기에 나타난 특수한 문학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타난 문학형식과의 차별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 시기에 지배적이었던 독특한 인식론적인 잡 예를 들면 미셸포코의 에피스테메(episteme), 토마스 쿤의 페라리티(paradigm) 등 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론적 정당성과 설명력을 확인해야 된다. 즉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통시성과 공시성이라는 두 지평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화해해야만 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196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문학론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고유한 문학형식인 메타픽션(metafiction)도 위와 같은 관계에 통시적으로는 문예시조 혹은에서 그것이 가장 시각적 특이성을 꽝아해 야만 되며, 공시적으로는 20세기 후반의 인식론적인 상황 -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이 이야기 되는 -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 글은 메타픽션을 단순한 문학형식이 아니라,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그중에서도 '주체의 죽음'과 '선험적 기의의 부재'라는 현상이 문학적 형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문예사조 출현에서 바라본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에서는 신고전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포스트모더니즘까지의 문예사조를 시기별로 계약적으로 짚어보면서 서술함으로써 다른 문예사조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변별적 차이를 드러내려고 한다. (신고전주의부터 포스트모더니즘까지의 문예사조는 지난편에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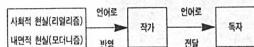
2. 메타픽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 - 주체의 죽음과 기의와 기의관을 중심으로

'모방'의 문학적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방의 대상(리얼리즘)은 사회적 현실, 모더니즘은 내면적 현실이 존재해야 하며, 다음으로 그 대상을 재현해 낼 주체, 즉 작가가 존재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작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대상을 정확히 재현해 낼 수 있도록 그 의미가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대상을 재현해 낼 주체가 인식론적으로 죽거나 (실제로 물리적인 죽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선험적으로 고집되거나 않는다면, 즉 의미가 잃어버려면 모방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강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지만 메타픽션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인식론적 상황이 문학에서 형성화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메타픽션'이 갖는 위치와 관련하여 '주체의 죽음'과 '선험적 기의의 부재'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상황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떠한 인식론적인 상황속에서 나타났는가? 먼저 아래의 도표를 보라



위의 도식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문학적으로 가능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현실이 주관의 내면적 현실이나 건강에 작가와는 독립해서 관객적으로 묘사 가능한 리얼리티(reality)가 있다고 보며, 그 리얼리티를 자신의 통일적 체계를 핸드로 의심해 본적이 없는 작가는 독자를 치우고 고려하지 않아서 선험적으로 의미를 고정시킬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재현해 낼 수 있으며, 또 작가가 부여한 그 의미를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의 순수성이 독자에게 확장되거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가 주제의 죽음이 의미의 원천으로서 미지 심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현상'이라고 본다. 작가가 이어서 현실을 반영해 낼 수 있다는 생각과 작가의 생각대로 의미를 고정시킬 수 있어서 그 의미의 원천적 부여자가 된다는 생각도 근본적으로 도전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생각에 의한 리얼리티이나 모더니즘의 도식이 보다 잘 어울리는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이에는 날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며, 또 작가 자신이 의미의 원천적 부여자가 된다는 생각도 근본적으로 도전받게 되었다.

메르너의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의 것과의 비교는 하나의 계시가 된다. 세르반테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있다.

....진실, 그 모체는 역사, 그것은 시대의 좋은 맞수, 행위의 보관소, 과거의 증인, 현재에의 규범이며 또한 교훈, 그리고 미래에의 경고.

17세기의 '천재적인 속인'인 세르반테스에 의해 쓰여진



관없이 언어의 유희에 만족하는 경우), 작가는 도저히 파악해 낼 수 없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리얼리티라는 것을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존재하지 않는지 일 수도 없어서 오히려 작자가 아니라 향조원을 세계가 진실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되묻는 것, 되었으며 (기술적 사설주의의 경우처럼) - 이점이 바로 프레드릭 제임슨, 테리 일리먼 같은 마이크로시즈 비평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는 이유이다. - 작자는 이제 리얼리티와 독자와는 결별한채 자신의 상황에, 그것도 모더니즘의 주관론이라는 건고성 섬이 아니라, 무의식의 한 관점으로서 또는 거울속에 비친 진실과 진실의 모습을 자기로 오간하면서, 상징적 체계 속으로 호령된 세로 자서자신이 주도로 아닌 허름한 상에 고립되었다. 그러나 독자의 위치는 전례없이 호령되었다. 작자가 자신의 멍청처럼 전래주는 의미를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전의 '자자' 와도 같은 위치에서 벌어나고 자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작품으로 작품으로서 의미를 참출해내고자 의미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작가', '작품', '작자의 의도'의 시대는 가고 '독자', '텍스트', '독자의 해석'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들이 작품으로서 의미를 주제로 한 관점으로 문학형태로 표출된 것이 메타픽션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의 죽음, 작가는 리얼리티, 독자와 결별한채 자기자신이 주인도 아닌 허름한 상에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작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해석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가 이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글쓰기의 기원이다. 등장인물은 화자인 나이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에서 라라, 나의 친구나 베이니온이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신이란이라는 통물이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어떤 대도시이다. 이 작품의 줄거리와 서술을 살펴보겠다.

(나)라는 인물이 있다. 그리고 리얼리티라는 인물이 있다. 그리고 (나)라는 인물이 있다. 그들은 각자 베이니온에 걸림없이 (걸림없기)하고 있다. 그들이 같은 걸림을 걸리면 많지 않다. 그들은 지구에 던져진 이산, 어떤 형식으로든 지구에 관계하여 살아보려고 밤울동한다. (살아남은 지의 술집)

프리시언의 시기로 칭할까 했을까 내비어는 개비단 술력을 불편하니 죽족 짜른다. 이기기의 서두의 기분은 중요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관계를 밝히고, 주 행정의 배경을 보여준다. 필요로 통증이나 그려운증을 드러내고, 적절한 곳에 모도브의 예시를 시사하고, 고조되어 통증의 첫 복잡화를 도입한다. 사실 (죽이기) 혹은 (살이기)에서 길을 잊고리는 제목의 소설을 상상한다면 오션 시티까지 차고 가는 예정의 대처일은 특별한 관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놀이집에서 길은 알고)

메르너의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의 것과의 비교는 하나의 계시가 된다. 세르반테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있다.

....진실, 그 모체는 역사, 그것은 시대의 좋은 맞수, 행위의 보관소, 과거의 증인, 현재에의 규범이며 또한 교훈, 그리고 미래에의 경고.

17세기의 '천재적인 속인'인 세르반테스에 의해 쓰여진

"언어가 어떤 일관성을 가진 의미있는 관객적인 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한다는 단순한 개념"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확신과 "언어는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적인 인식계와 리얼리티간의 연관성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위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메타픽션은 '아무것도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차이를 뒤에서 형식 주제에 둘고 있다. 오직 휴머니즘 형식적 변화를 문학의 목적으로 하는 그들에게 문학은 관객적 현실이나 개인적 내면세계를 거울 비不代表로 정확히 대변해 내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 변화를 통해서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것이 문학의 목적이 이상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러나 이 미 언어의 재료의 가능성과 불분명한 지적 풍토에서 자신의 문학을 짐개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설립 그 자체와 독립하여 관객적으로 존재하는 리얼리티를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어로 대변해 낼 수 있다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것이다. 페트리리아 교수의 말대로 누군가가 세계를 재현하고자 한다면 그는 세계에 '재현될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 교통을 막아 놓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은 리얼리티와 작자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작가의 고집력을 기울여온다.

둘째, 메타픽션은 리얼리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독자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독자에게 신과같은 위치로 어려졌었던 리얼리티나 모더니즘의 영광적인 작가는 그대로 독자에게 고립된다. 그 스스로의 세계를 배제해놓고 있는 대신 이내 독자는 그 스스로의 미의 창출기자 된다.

셋째, 메타픽션은 위와 같은 두가지의 단절로 인해서 작가의 이종의 고집력을 보여준다. 한번은 리얼리티와 다른 한편은 독자와 연관없이 흘러 고립된세계 존재하는 것이 이제 작자의 위치가 되었다. 되었거나 이종의 고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의 원천이나 고장으로서의 전통과 회의의 해체이다. 의미는 작자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를 치우거나, 보편적인 구조에 의해 결정되거나, 작자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거나. 이제 '누가 말하는가'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서 말하는가"하고 물어야만 된다. 근대의 주체 중심적 철학에서 주체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적, 미학적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티켓이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구조화된 주체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메타픽션은 위와 같은 두가지의 단절로 인해서 작가의 세례의 변형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 모방문학의 의미 상실

"이들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소설미학의 대전철인 미에미스의 주장과 그 자체가 이미 언어에 매개된 패션�이기 때문에 미에미스 행위는 그만 의미를 상실하고 미는 것이다."(p.159)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파인세의 세계의 변형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 모방문학의 의미 상실

"이들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소설미학의 대전철인 미에미스의 주장과 그 자체가 이미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글쓰기와 현실의 형위가 소설속으로 흘러들어오며, 허구적으로 창작된 소설은 또다시 글쓰기의 형태로 현실로 흘러나온다. 이처럼 현실(창작행위와 형위)과 소설(구현적 글쓰기)이 되고 소설(구현)이 현실(작자와의 협상)이 되며, 소설과 현실의 관계(글쓰기)가 소설이 되는 작품이 메타픽션이다."(p.251)

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ii)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작가의 세계를 편집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 놓이는 또 하나의 리얼리티...."(p.157)

iv) 언어의 유희

"언어의 일차적 가능성이 이들에겐 어떤 것을 표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언어에 매개된 패션인가에 따른다. 예전에 언어를 통해 살피고 살펴온다. 신교수와 주장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i) 현실 허구간의 경계 해체

</div

20세기 후반 시대정신의 문학화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을 뒤엎는다.

철학적인 cogito는 … 자기 자신에 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근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찾도록 한 신기한 역할의 중심부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 다음과 같이 밝혀야 한다. 즉 내가 너의 사유의 찰나검인 곳에 서 나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유한다는 것을 사유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사유한다.¹⁰

리昂에게 주제는 상상계에서 상상계(언어의 세계, 기표와 세계, 법의 세계)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이어서 영광과 영광의 세계와 한 자리에 접합함으로서 구성된 것이다. 주제는 인형극이나 '나' 그리고 '우주의 아들'이라는 기표를 사용함으로써, 반복적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 차이와의 대화에 의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주어지는 언어적 상상계체계에서 재현된다. 그러나 '나'라는 것도 이와 대립적으로 구별되는 '나', '그' 등 차이에 의해서만 그 사용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 때

체성의 수용과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체는 상징체계의 구조적 특이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소외와 분열을 수사들이 이제 숙씨를 두고 다들 선녀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야.

마, 기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기표의 결과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언론자는 주제는 언론성의 주제를 확장·파악하는 행위, 일정한 대상 대변하는 행위와 언론주체를 지지하기는 하면서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이러한 다음 여기 누가 감히 작가가 의미의 원천인 고집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가? '지금은 본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나서 마침표를 찍어 기장을 끝낸다. '선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집점수사로 찾았을 때 생각해보면, '선너'는 단어의 의미를 고집점수사로 찾았을 때 생각해보면, '선너'는 단어의 의미를 착각적으로 찍어 이전에 '선너'라는 단어의 미를 절차적으로 고집점수사로 찾았을 때 다음의 두 문장에서 '선너'의 의미도 외동으로 찾아야겠다.

의미적 '상대성'의 존재와 함께 시간과 공간속에서 고정된 경험적 기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앞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을 응호하는 작가들이 전진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회적 현실이나 내면적 현실을 언어로 포착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단어의 의미를 독자와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없이 작가의 의도대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놓여 있다. 독자나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의미의 '상대성'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상대성이 주제로 삼은 자신의 이데올로기, 도덕관념, 신념에 고착화된 저작자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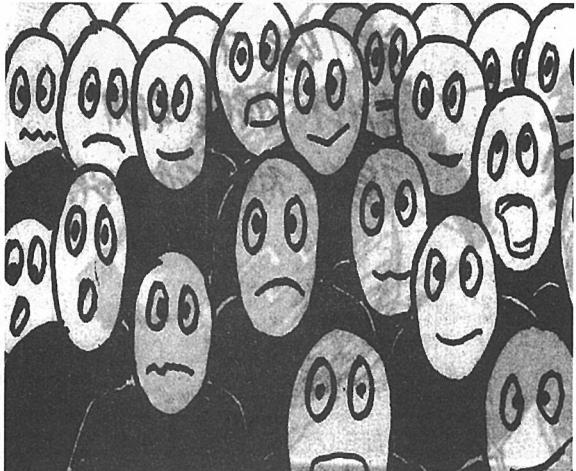


하게 하는데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의 외래가 메타필osophy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장과 공간에서 속하고 경제와 물리학이 있는 현실적 경계는 이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직자”(priests)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경계에 있어서 베인 인식론적으로 경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용어이다. 필자는 여기서 이 용어를, 그리고 독자, 상황을 앞세워, 이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의미가 확실하게 고정되어서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의 바탕이 되었던 '선험적 기의'에 대한

인문과학 담수자 – 오승성(서양·서비아 4)



당소감



오승성
<서양·서반아어 4>

복학해서 졸업을
앞둔 그날에
동안 합류 비
판적 성인화
을 만들이나
간다는 목표
이래 열심히
활동했던 끝
화제성영모임 미
네르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다 했
디자인과 함께, 이제
는 남과 함께가야
나리 나 홀로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서사를 곁에
기주의가 나를 사로

잡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피해의식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자위해 본다.

밤 늦까지 나와 고을 함께 해운 이정화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문화분야 모니터링과 함께 고을을 찾았던 박수하고 김성진과 함께 저마다 기를 머금고 나누고, 살피고 학교하고 어내니 사설로스터는 나에게 힘을 밭은구, 이수연, 강성진, 송인숙, 솔방울에게도 이 기회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정신적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UBS 경북경기 북부 원고를 봄날에 가지고 저를 주신 회사원이, 서현아씨와 당시 왕경원과 업체에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끝으로 최근에 나의 친구가 다. 이재우에게도 고맙습니다.

III 끄 땠 는 만

메타픽션과 더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의 일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오르내린 시기는 80년대 후반이었으며, 특히 87년 월 헝가리가 끝나면서부터 - 당시방법, 밀사방법, 의 쇠와 더불어 - 책이나 잡지, 신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거론되었으며, 90년대 초반에 그 논의가 확장되다니 것 같다. 80년대의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였던 민족, 혈연, 민족, 자본, 여성, 암살, 드록, 주체, 통일이라는 딤섬이 시대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문학적, 미술적, 예술적 등 다양한

- 주

 - 박 일문, 「삶이남은 자의 솔itude」, 민음사, pp.28~29
 - 신 문수, 「페티파선의 위상」, 『포스트시대의 영문학』, 김 정호/이 소영 편, pp.155~157에서 재인용.
 - J. L. 보르즈스, 「동아리호의 저자, 파이어 메니저」, 『죽지 않는 인간』, 조 응국 역, pp.192~193.
 - 신 문수, 「페티파선의 위상」, pp.154~166

나) 별첨, 「근대성과 근현문학」, 문예출판사, pp.220~266

6) 페트라샤 위, 「페티파선」, 김 삼기 역, 철학사, pp.16~17.

7) 주제의 죽음이라는 용어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넓은 범위로 걸쳐서 사용하고자 한다.
i.) 인식론적·존재론적으로 주제가 근본분리로서 기능하지 않을을 의미한다.
ii.) 기호학적으로 말해서 기와의 신협적 고장자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을 의미한다.(필자가 앞에서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언어의 죽음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화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말하면서 포스트모던 나시즘 까지의 문학은 주제가 언어의 의미와 고리를 찾을 수 있는 생활에서 언어의 재현형을 사방으로 신화하였다. 필자가 앞에서 포스트모던과 문학의 특징인 「폐티파선」은 언어의 재현형에 산상고리를 내었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스트들은 외연과 주제가 외연으로 기와 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밀레일에 기와의 신협적 고장자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을을 주제(기와)의 죽음으로 본다면 그 이 점에서 주제의 죽음과 페티파선이 겹쳐 끝난다.)
iii) 문학학적으로 말해서 도법학적의 규장자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을 의미한다.

iv) 자신의 경제성이 상징체계로의 진입장벽에서 구애됨을 의미한다.

v) 자신의 경제성이 위치에 있어서 구애됨을 의미한다.

vi) 미의 판단지도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을 의미한다.

위와같이 넓은 범위에 걸친다는 주제의 죽음에 제자리인 의미를 필자는 첫 번째 즉 인식론적, 존재론적으로 주제가 근본분리로서 기능하지 않을을 의미하고자 한다. 즉 나마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인식론적, 존재론적 주제의 죽음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음장부터 전통적인 주제중심주의의 활화자들이란 칸트, 혼제고고, 후현 등을 분석하고 뒤이어 프로스트모니즘의 반주체형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푸코,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카뮈를 진지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5) 김 형표, 「구주주의의 시유체계와 시사」, 인간사랑, p.132

6) 로버트 텔리어, 「데비 앤리아의 이해」, 이영희 역, 시각과 언어, p.29

7) 김 혜경, 「구주주의의 사유체계와 시사」, 2006 리크리에이션 이름을 재인용함

音译

39. 김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의 딜레마』, 서울, 민음사, 1992

40. 김성근,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 미술』, 서울, 일광사, 1990

41. 김정희 외 편, 『문화에 사로잡힌』, 서울, 문화과 지식사, 1992

42. 김육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1992

43. 김육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주의』, 서울, 현암사, 1991

44. 『……,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식사, 1992

45. 7. 박원, 『근대성과 근대문화』, 서울, 문예창작사, 1995

46. 8. 대카르트, 『법률상사/설립/법정분리 외』, 김현호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91

47. 9. 로드먼 헤슬리 외, 『현대 영화이론의 이해』, 이 애제·소연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5

48. 10. 빅 페리, 『미술작업 인간』, 밤 미경 역, 서울, 고려원, 1994

49. 11. 먼로 C. 비아우리, 『미화사』, 김정선·안 원현 역, 서울, 이쁜본·실천, 1995

50. 12. 미셸 푸코, 『자신의 고백화』, 이 경수 역, 서울, 민음사, 1994

51. 13. 『……, 『급문론의 길서』』, 이 경수 역, 서울, 새길, 1993

52. 14. 박 일운, 『서아님은 저마다 슬픔』, 서울, 민음사, 1992

53. 15. 베르나르 바리크스, 『페렐의 정신현상학』, 강 춘진 역, 서울, 서평사, 1991

54. 16. 아너그라 브로흐, 『자크 라캉』, 이 미선 역, 서울, 문학과 사회사, 1994

55. 17. 에드먼도 허스트, 『데카르트의 심리학』, 이 종훈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3

56. 18. 『……, 『큐피학派의 위기와 선형학 현상학』』, 이 종훈 역, 서울, 이쁜본·실천, 1993

57. 19. 이 성현 편, 『문화비평의 방법과 실제』, 서울, 삼지원, 1991

58. 20. 『……, 『문화에 사로잡힌』』, 서울, 민음사, 1991

59. 21. 임미누루 카트, 『순수이상학』, 전 정희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91

60. 22. 『……, 『판단력 비평』』, 이 쑥준 역, 서울, 백당사, 1992

61. 23. 정 경호 외, 『포스트모더니즘의 문론집』, 서울, 일음사, 1992

62. 24. 테리 이글린, 『문화에 따른 입문』, 김 명환 외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6

63. 25. 페트리샤 외, 『메타파시온』, 김 상구 역, 서울, 일음사, 1992

64. 26. 한국외대 보르нес 연구회, 『중남미 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집』, 서울, 책갈피, 1993

65. 27. 한국 해설학회, 『책갈피연구4』, 서울, 지식산업사, 1988



박희영

두 편의 논문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가 문학 작품(특히 메타픽션의 경우) 또는 영화 작품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심사자는 네 명의 응모자 모두 전공이 아닌 분이 어려운 주제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연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준다. 심사단은 네 명 모두 학술 논문의 기초적인 주제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에 반해 단점은 필자들이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사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기 나가는 학술적 차원에서의 글 쓰기 훈련을 강화하면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다. 사실 서술·논의·판단·비판·주제에 대하여 이미 나아니와는 이론들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때 날을 수 있는 다른 견해를 새로운 놓는 Thesis을 위하여.

네편의 작품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적 상황」에서 비판은 메타퍼시의 문학적 의의를 당선으로, 「영화 텍스트와의 기호학적 분석」을 가작으로 받는 이유는 영화 텍스트에 상대적으로 학술 논문의 기준에 비해 적기 때문이었고, 독자들에게 많은 점을 짚어가면서 이해도를 고려해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에 나타나는 이론과 그에 따른 문학 분석은 그동안 문학 분야에서 차단되었던 문학과 철학, 미술과 미술의 이론에서 전통 철학이 형이상학적 근거(Hypothesis)로 있었던 '독서'에 대한 간접이나의 부합할 수 있는 지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굽꺽이 보도해 화두를 던진다.

민중가요, 그 끊임없는 생명력에 대해

민중가요도 가요다, 그러나 생각이 있다

삶의 반영을 넘어 희망찾기의 노력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것에 하나가 바로 '민중가요'라는 것이다. '민족처럼'이나 '백두산' 같은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면서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 노래 일상의 대중가요 위에는 다른 이런 종류의 노래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내내 대중가요의 비단길 세련되었다고 느끼지는 그 리듬이나, 과격한 가사와 리듬의 '투쟁' 같은 노래에 거부감을 느끼고는 다시 대중가요의 나름대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자. 당시의 진정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라면 그 어떤 대중가요와 팝송보다도 다양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또한 어떤 가곡이나 랙드로 노래한 적 없는 이 땅 다양한 사

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민중가요의 '페니'가 되어 하지 않는가 하...

우리는 지금껏 많은 예술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왔다. 연주와 세련된 기교와 심악기의 뛰어난 발달 등, 대부분의 경우 그 세련과 정교함에 놀라고, 진정한 예술이라 이해해 한다.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은 예술 그 자체의 의미가 그렇듯 세련됨에 의해 아니라 삶의 체험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의 삶과 감정을 잘 표현해 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다.

노래는 확실히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이 땅에 생겨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이후 물질 문명의



눈부신 발전속에서도 아직까지 끊임없이 존재해 오고 있다. 이것은 노래만이 갖는 특별한 힘 때문이다.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베이비나 연설보다도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세계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간의 유대감을 다지게 되는 그런 힘. 즉, 노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래에 있어서 생활에서의 공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노래, 민중가요는 이런 측면에서 노래의 본성에 가장 충실했던 노래라는 생각도 가져본다. 노래속

에서 자신의 삶을 들려볼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민중가요의 역할이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와서서 민중가요를 접하게 되었듯이 대학은 다양한 비판과 이해로기가 숨쉬고 있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대에 대한 건강한 비판 정신, 삶적인 소신문화와 대문화와 무관적인 수동적인 민족화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며, 공유체적인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고 우리가 노래해야 할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페니마리나 대제원의 개인화된 힘에 맞서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불리워지며 전해지는 노래가 진정 '아이있는' 화석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민중가요가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세상은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이 기본 자본적인 힘을 믿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가요는 이러한 인간의 힘을 믿는다. 그러므로 단지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 만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 우리가 창조해 낼 수 있는 보다 민족적인 사회로 바꾸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희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은 주
(동양·터키어, 외대노래창작단)

을 겨울 또 하나의 학교가 열린다.
1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번들란의 영화학교'

가 바로 그것이다.

이 행사는 그동안 대학내외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한 용인의 충여학생회(건)과 서울 여학생 위원회가 9년 첫사업으로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여성문화예술기획이 대중적·구체적 목표인 영화를 통해 접근하는 의도로 주관된다.

"사실 영화를 믿는 집단, 즉 강



독이나 카페에서도, 가자, 연출, 경영진 등을 거의 대부분 남자이다. 따라서 영화는 남들이 하는 경험에 기초해

가 되고 그 영화에서 그려지는 여성은 늘 폭력에 억압받고 성적으로 회생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해하는데 방증 영화학교의 의의가 있다"라고 충여학생

위원회 위원회(서학·서민아이어 3) 회장은 말했다.

총 6회로 이루어지는 영화학교는 각 회마다

다른 주제를 갖고 영화와 강의와 동시에 하

는 힘을 지닌다. 이 행사는 외대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단순히

영화에 대한 관심과 전문기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참가자들 간이 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특색이다.

이번 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영화읽기'라는 제목으로 주로

영화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식으로 영화를

읽어야 하는지를 짚어볼 예정이다. 영화제때 선보일 작품은

알려진 '301·302'나 '투캅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미리안느'와 '줄리안느'나 '에타개 수잔을 찾아서' 등도 있다.

페미니즘과 이번 행사의 목적에 대해 학생회장은 "페미니즘은 결코 대남성우정이 아니다. 여성의 권리 이해하고 회복을

으로써 남성과 여성은 음미에 고 있는 남은 틀을 깨자는 것이다.

이 틀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운동은 필요한 것이고 막연히 이론

적으로만 알고 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느낄 기회

를 가지는 점에서 이번 '페미니즘과 영화학교'는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장은 "여성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틀을

깨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관객

들에게 당부했다.

홍연화 기자

의대인의 의대인에게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자

지금은 온 친지가 눈으로 닮은 겨울이다. 겨울이면 포근해지는 계절이기는 어둡지만은 않은 희망이다. 하지만 한편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희망이 있다. 새 봄에 디시한번의 학원에 생기를 불어넣을 새내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전 진부한 표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새롭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육아와 오는 현실의 고통속에서도 여전히 새롭게 만족으로 희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은 이유도 그것이란 온갖 낯선 백색으로 구된다. 내하고 담당하지만 새내기들이 살아갈 학원의 모습을 조국의 모습으로 이 있지 않아 한다는 비报复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기서 있는 것이다. 아니 그저 서 있는 것이다. 아니라 투쟁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끝이 오고 황량한 새주인이 될 새내기들을 위해 끄루개 피어나는 새생명의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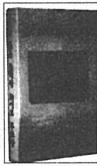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모친 겨울이다. 하지만 한편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희망이 있다. 새 봄에 디시한번의 학원에 생기를 불어넣을 새내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전 진부한 표지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새롭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육아와 오는 현실의 고통속에서도 여전히 새롭게 만족으로 희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은 이유도 그것이란 온갖 낯선 백색으로 구된다. 내하고 담당하지만 새내기들이 살아갈 학원의 모습을 조국의 모습으로 이 있지 않아 한다는 비报复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기서 있는 것이다. 아니 그저 서 있는 것이다. 아니라 투쟁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끝이 오고 황량한 새주인이 될 새내기들을 위해 끄루개 피어나는 새생명의 희망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다.

김 흥 철
(자연·물리 3, 응용컴퓨터 부총학생회장)

큐멘티리를 통해 본 장기수의 생활



불행한 현대사로 인한 침묵의 세월

부분은 가족들과 연을 끊고 가동이 가능한한

분들은 하드웨일이나 막노동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암암수 후원이나 종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

는 명목상으로는 출소를 했지만 여전히 생계

의 위기와 간접적 대학 두려움에 의해 여전히 험하고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했다.

제작과제의 어려움을 대상 김태일씨는 "3

년여의 오랜 캠핑기간 동안의 재생적 어려움, 국가보안법 위반 명목으로 6월 14일 작

품과 기자재를 압수 당한 이후로는 협박, 그리

고 폭력으로 시선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었다"라고 밝혔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재학 중인 김태일씨는 "사회적 문제와 이념의 갈등, 분단을 넘어 사람들의 '어머니의 보살핌' 수간에 이재되었지만 이성이 3번의 작품이다.

이 디큐멘터리에서는 친목적인 김복리 목수리가 배제되어 있다. 회면 속에는 단지 내가 많고 병약한 장기수들의 심사모습이나 대화장면, 그리고 청소에서 산보에 이르는 자주를 든다.

포한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태일씨는 "내가

전혀 험하고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어두운 소재만의 밤글에

대한 물음에는 '하지만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디큐멘터리를 포기

하는 것이다'라고 더이상 이런 것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지 않을 때까지

믿을 생각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 속에서 이 땅에 서 와서 당하고 있는 장기수들이 삶 곳은

피연 어머니에게 대한 심각한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지나 기자

전과시행 공고

1997년도 전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희망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학과별 및 응시교무처 계시판에 공고

2. 전과자격 : 제2학기 전과대상자로서 34학점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3.50이상인 재학생.

* 다음의 경우는 전과를 할 수 없습니다.

·복수학과에 입학한 자(09중지원자는 학과별 전과전형의 결과없이 불합격 처리함)

·3개 학기 이상 재학한 자

·유학중인 자(단, 유학이 달려온 전과신청 기간에 복학신청한 후 지원 가능함)

·내시과대학에서는 시험대체로 전과

·입학금과 수료금을 다수부수로 학부내 전과

·캠퍼스간 전과

3. 선발기준 : 학과별로 선발기준을 정하여 총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을 포함할 수 있음.

4. 지원 방법

가. 구비서류 : 전과원서(학과별, 응시 교무처 비치), 성적증명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사진 1매(3cm × 4cm), 전형료 10,000원
나. 신청자는 전과원서(신경부록)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학과별(응시교무처)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함.

다. 해당학과에 전형일정을 확인한 후 학과별 전과에 응시하여야 함.

5. 전과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전과원서 접수	'97. 1. 29(수) - 1. 30(목)	학과별 (응시 교무처)	
학과별 전형	2. 3(월)	지원학과	전형시간은 학과에서 확인
전과정지자 발표	2. 10(월)	학과별 (응시 교무처)	

6. 유의사항

가. 전과생에게는 전과학과의 학번을 새로 부여함.

나. 전과는 인한 등록금 차액은 바로 납부하거나 환불받아야 함.

다. 전과생은 전과학과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함.

라. 전과학과에 이수한 전과교과는 전과학과의 교양 및 지원선택 학점으로만 인정함.

마. 전과생은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또한 전과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1997. 1. 1.

교 무 처

The Argus.

민족주언론의 선봉 외대학보
일천방송, 뻔한보도 이문F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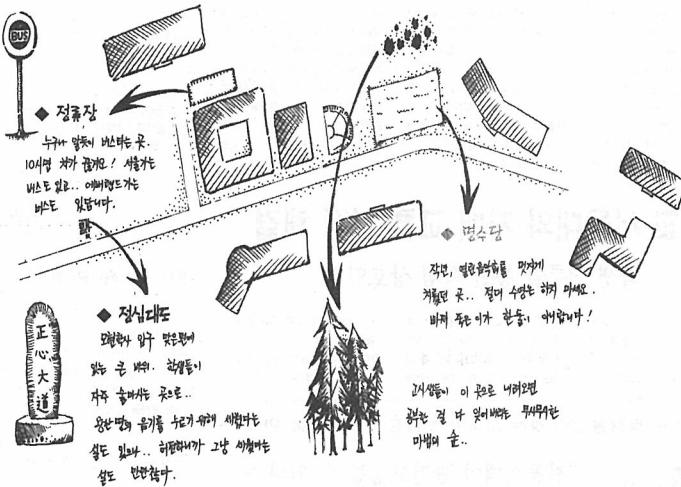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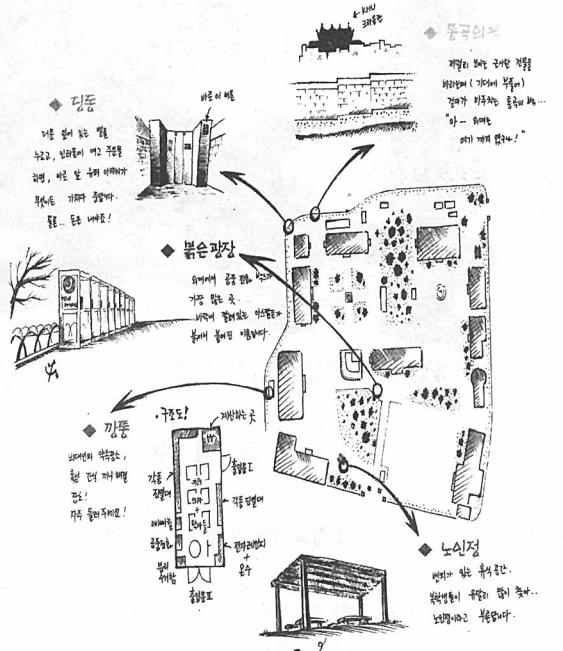
참소리, 밝은소리, 대학소리, 높은소리 웨이브 FBS
새로운 시대, 진보의 길을 여는 '의대' 교지편집위원회

제9대 언론협의회

새로운 시대 진보의 길을 여는
「의대」교지편집위원회

신입생 특집

지도를 보는 외대명소



외대는 자주 민주·통일투쟁의 선봉에서 서 있다.

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의 외대의 역할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외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 외대투쟁의 역사를 들여본다.

인물로 조명한 외대투쟁역사

그대가 걸어온 길이 바로 역사다



□ 87년 6월 항쟁 당시 학생투쟁연합 부의장 양정철(법·법학 84)

“매일 2천의 외대생들이 거리로 나갔다”

로 6월 항쟁이다.

양선배는 “당시에는 한총련과 같은 중앙집중된 전국적 조직이 없어 조직이 세계화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외대를 중심으로 한 등부지역 및 몇 개 학교가 이에 대처해 강하게 일정과 국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동한 것이 6월 항쟁이다”고 6월 항쟁을 이런 주제를 통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 후 노태우의 6·28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전 국민의 분노는 계속되었고 그 이후로 연대생 이한열군의 죽음으로 더욱더 정권의 입장을 깨웠다.

“당시 외대는 거의 전체 학생의 반수 이상이 2000여명의 학생이 일상을 제외한 매일 일은 지금은 노현경장이 들어선 민주광장에 모인 집회를 하거나 거리로 나ったり 대생들의 드넓은 민주화 열기를 표현했다.

“6월 항쟁 당시 지도부사이에서 지속

적인 투쟁보다는 힘을 모으기 위해 한동안의 휴식기를 갖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러나 외대를 중심으로 한 등부지역 및 몇 개 학교가 이에 대처해 강하게 일정과 국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동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라는 기사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며 당시 상황에서 외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97학번들에게 양선배는 “대학이라는 공간은 순수한 학문의 길이며 양심의 전玷이다”며 “자신을 비판·재발·정신과 이를 행동화하는 실천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인보다는 지성인이 되어 이 사회의 변화·발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비报复를 말했다.

이동훈 기자

□ 89년 평축참가 전대협대표 임수경(서학·불어 86)

“외대는 통일투쟁의 중심이다”

외대가 배출한 ‘통일의 꽃’ 임수경(서학·불어 86)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찾을 것이다. 그녀가 진정한 통일의 꽃으로 인식되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로 “원래 어려운 평생에도 기록에 있는 밤마다.”

임수경 선생의 별북 경위는 대충 이렇게 알려져 있다. 89년 8월 도쿄, 서해를 끝내고,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북한에 도착한 임선배는 그로부터 46일간을 북한에 체류하게 된다.

그 동안 평양축구장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하고 남북화생물학동선언문 제작 등의 중요 활동을 했다. 물을 때는 판문점을 통과 오셨다는 의사가 유엔군의 불려로 좌절되자 69일간의 단식 끝에 군사분계선 넘기도 했다.

이 때가 해방 4년째 되는 날인 89년 8월 15일이니 그 강장적 의미가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다. 89년 당시 외대는 이런 임수경을 배출한 만큼 학생들의 투쟁 의지와 실천력면서 단연 선두였다고 할 수 있다. 임수경 선배도 “원래 어려운 평생에도 기록에 있는 밤마다.”

임수경 선생의 별북 경위는 대충 이렇게 알려져 있다. 89년 8월 도쿄, 서해를 끝내고,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북한에 도착한 임선배는 그로부터 46일간을 북한에 체류하게 된다.

그동안 평양축구장에 전대협 대표로 참



선배는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을 가지는 거리’이며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리라 생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런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며 “그 레아 2~30년후 우리가 중심이 된 세상이 됐을 때 지금처럼 도서관 불박이들이 어른을 주도하는 광경은 되지 않을 것”이라 부탁했다.

박윤정 기자

□ 91년도 정원식 총리 서리 투쟁시위사건 당시 총학생회장 정원택(상경·경제 84)

“우리 페루아가 아닌 정의를 실천한 청년이었다”

처로 사용됐다”며 91년도 외대학생들의 경enser 밝혔다.

당시 정원식은 2번쩨이자 마지막 강의를 위해 모든 메스킹에 연락을 하고 결호원없이 전철을 타고 충종이 외대 교정을 찾았다. 그는 당시 학생을 확인한 학생들이 정원식이 강의하는 대학원건물로 모여 본노의 표시로 준비한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정원식 선생은 “당시의 정원식은 스승이 아니라 정의기로서의 일자리를 굳힌 인물이었다”며 “그러나 당시의 언론은 스승에게 린치한 가족 ‘시대의 폐물’이라는 과도하게 적인 문구로 사람의 의도성은 짙은 정부의 입장을 살펴하기에 어려워 앓았다”며 당시 언론의 오류를 지적했다.

“6·30”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원식 선생은 당시 학생들이 당시 언어를 해야 할 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의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었다”며 “언론 보도의 달리 당시 학생회

이동훈 기자

□ 92년 대발전운동의 원년 92년

자곡동 이전·등록금 문제 계기로 분출돼

외대발전 혁신의 열기가 뜨겁게 분출

했던 92년도 91년도는 외대에 있어 의

대발전 운동의 전초전을 그은 ‘외대발전투

쟁 원년’의 해’라 할 수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자곡동으로의 캠퍼스

이전 문제와 그로인한 학생들의 불편

들은 외대의 근본적 발전 대안으로 떠오

른 238여평의 자곡동은 당시 학생들의

인지도가 현재의 상황보다 높아 적극적

인 대발전 운동의 핵심사안으로 부각

됐다.

20여일이 넘는 수업거부 투쟁은 당시

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수업

거부 투쟁을 경험한 당시의 학생들은 자

곡동에 대한 뭔가 잊지못할 애착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92년 이후 전개된 반제단운동의 패배로 자곡

동 이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현실적 가능성을 회의

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회의

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곡동을 외대발전을 위한 현



실적 대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활발한 사업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다. 그 당시는 등

록금 지출을 조치로 대학의 자금 조정 능력을 신장시

킨다는 미명 아래 국고지원금이 폐지되고 수익자 부담

의 확대로 사학재단의 기업화, 영리화가 가속되는 상황이었다.

재단입금이 약한 현실 아래, 해마다 10%이상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은 이제 대학기의 연예행사가 되어버린 등록금 부담은 외대인에게 있어 대발전운동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책정하는 현실상식은 당시 92년의 예산 책정 방식과 같았다. 당시는 학생들의 요구가 대체로 김정자·이언재·이언희·김경자·이언재였던 예산과 학교축제의 협상에서 외대 발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축제의 협상에서 외대 발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김정자·이언재·이언희·김경자·이언재였던 예산과 학교축제의 협상에서 외대 발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다. 그 당시는 등록금 지출을 조치로 대학의 자금 조정 능력을 신장시

킨다는 미명 아래 국고지원금이 폐지되고 수익자 부담

명재경 기자